

나와 남을 똑같이 생각하자

「개남이미리 각기 올파리 스님」 초판스님박목

대승에 들어가기 위한 발심

심사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보리심(깨달음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우리는 초발심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대승의 길로 가야만 한다. 대승의 길은 바로 상사도의 보리심을 배우는 것이다.

보리심의 10가지 이득: 첫째, 대승불자만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 보리심이 생기면 안생기고에 달려있다. 보리심이 없으면 어떠한 수행을 하게 되더라도 대승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 우리는 주로 참선, 염불, 밀교에 의지해 수행하고 있지만 보리심이 없으면 삼독만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리심에 의지하지 않고서 명상이나 전언을 외우는 것은 고생만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윤회세계라는 감옥에 묶여 있던 보리심이 생기게 되면 그 순간부터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다. 보리심이 없으면 미래를 아는 신통과 공성 등을 공부하더라도 대승불자가 아니다. 셋째, 큰 신하들도 함의 어린아들에 비할바 못되듯이 보리심을 발심하게 된 이는 성문이나 연각들을 비할바가 못된다. 이렇게 8만4천대장경의 핵심은 보리심이다. 넷째, 보리심이 생기면 윤회세계의 신이나 인간들이 철하게 되며, 공양을 받는 최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공덕을 쌓는다는 보리심보다 나은 것이 없다. 보리심으로 하나의 향을 피우더라도 백명의 중생을 생각하여 피우면 백명이 향을 피운 공덕이 생긴다. 염불이나 절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여섯째, 자기가 지은 죄를 없애는다는 보리심이 최고이다. 참회를 해서 없어지지 않는 큰 죄를 보리심으로 없앨 수가 있다. 일곱째, 보리심이 생기면 현재와 미래의 의미있는 일들이 모두 잡힌다. 여덟째, 보리심을 가진 이들은 사천왕이나 신장들이 발탁없이 지켜준다. 아홉째, 보리심 없이 공성만으로는 지혜의 덕을 쌓을 수 있지만 복덕을 쌓을 수 없다. 열번째, 부처님은 보살에서 생기며, 보살은 보리심에 의하여 생기므로 일체중생의 행복의 뿌리는 보리심

뿐이다. 서방삼세 부처님들중 보리심 없이 깨달음에 이르신 분은 한 분도 안계신다. 보리심 없이는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다. 보리심에 대하여 입으로만 하는 것은 보리심이 아니다.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따라야만 보리심이다.

보리심 생기게 하는 가르침

일체중생을 위해 부처가 되고 싶다는 발심을 하기전에 남의 짐을 모두 자신이 들 수 있다고 하는 결심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일체중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불쌍하게 여기는 자비심이 생기지 않으면 결심이 생길 수가 없다. 이런 자비심이 생기게 위해서는 어머니가 그 아들을 귀중하게 여겨 사랑하듯이 일체중생에 대한 자비의 마음이 생겨야 한다. 또 자기 친척중에서 제일 친한 사람은 어

장해하면 일체중생 모두에게도 마음이 병든다. 이렇게 경정한 마음을 지니지 않고 보리심은 생길 수 없다. 일체중생을 어머니와 같이 생각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보리심을 얻을 수 없다. 친척이나 원수 등도 전생에 어머니였을 적이 많았다고 명상하면 도움이 된다.

은혜를 알아야 함: 일체중생들이 어머니였을 때 매우 은혜로웠다는 것을 명상하여야 한다. 모든 힘을 모아서 자식의 고통을 없애주는 그 은혜는 한량이 없다.

은혜에 보답해야 함: 일체중생을 어머니로 생각하여 자식의 큰 잘못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 고통의 짐을 들어줄 사람은 자기뿐이라고 명상해야 한다.

자애심: 일체중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애심이다. 위의 세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

최고한 결심: 어머니를 불쌍하듯이 중생의 고통의 짐을 자신이 들고 깨달음을 얻게 하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해야 한다. 자애심과 자비심은 상문·연각에게도 있지만 확고한 결심은 없다.

발보리심: 발보리심은 남을 위해서도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보리심이 생기면 바로 대승의 가르침의 길로 들어선 것이며 깨달음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자타를 평등하게 여기는 마음: 인과의 순서를 알아 발보리심이 생기면 여기서 더 힘을 얻기 위해 자타를 평등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한다. 먼저 자기와 남을 똑같이 생각해야 한다.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자기와 남을 똑같이 여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 자만심, 아귀워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익을 위해 보시하면 안된다.

지계: 허사에 나오는 10계를 지키는 것과 6바라밀 실천이 모두 지계바라밀이다.

인욕: 자기를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인욕이다. 화를 내는 것은 악행 중에 가장 나쁜 것이다. 화내는 마음을 버리면 원수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므로 원수를 다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신병자가 의사를 배리면 의사가 화를 내지 않고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고 그의 번뇌를 없애주는 행동을 해야 한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 인욕에 대한 보시를 하게 해줬기 때문이다. 행복에 집착하고 고통이 자신을 기르는 악이라고 생각하자.

정진: 6바라밀에서의 정진은 선행과 수행을 완전하게 하는 최고의 기술이다. 게으름은 정진을 방해한다.

선정: 물통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선정이 없으면 수행이 제대로 안된다. 지혜가 생기려면 흔들리지 않는 선정이 필요하다. 선정을 위해서는 조용한 장소가 있어야 하고 욕심이 없어야 하며, 만족하는 마음으로 계율을 잘 지켜야 한다. 의미없는 일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

지혜: 새가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듯, 선정과 지혜가 같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다. 또 보리심의 방편과 공성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 공성의 지혜를 명상하려면 복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알고, 스승에 의지하여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일체중생 내 어머니” 미워할 사람 없어 육바라밀 실천 보리심 키우는 대승의 길

머님이다. 따라서 일체중생 모두를 자기 어머니와 같이 여기자. 발보리심을 얻기 위해서는 7가지 인과를 순서대로 알아야 한다.

일체중생을 어머니로 알자: 우리는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등의 경정한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 친척과 원수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경정한 마음을 지니는 명상을 실천하여야 한다.

원수를 생각할 때 미워하고 화가나고 하는 마음의 원인을 살펴보면 전에 자기를 해롭게 한 이유 때문이다. 원수는 전생에 친척이었던 적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여 미워하고 화내는 마음을 없애야만 한다. 친척 역시 전생에 원수였을 적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여 좋아하는 마음을 없애야만 한다. 원수와 친척과 그 중간 사람들의 세가지에 마음이 평

가지 원인에 대하여 명상을 잘하면 자애심은 저절로 생기게 된다. 지금 중생들이 행복이라고 집착하고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다. 그러므로 일체중생들이 모두 행복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행복하게 되어야 한다는 마음,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마음을 명상해야만 한다.

자비심: 자비심은 대승불자도 만들어 발보리심의 뿌리도 되며, 또 씨앗처럼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보살행을 할 때의 내대한 마음을 없애주는 정진의 물과 거름도 된다. 깨달음을 얻을 때에도 남의 일을 도와주는 것에 열매로 사용할 수가 있다. 보리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자비심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자비심이 생기면 일체중생의 고통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큰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염려하는

가지 않기 때문이다. 행복을 바라고 슬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자기와 남이 똑같다. 자기만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원수같이 여겨 이기심의 허물을 벗어야 한다.

보리심이 생겨 부처가 되는 것은 중생들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하고 보시할 수 있게 하고 계율을 지키게 하고 인욕할 수 있는 대상은 모두 중생들이다. 때문에 반드시 남을 귀하게 여기는 이타심의 이득을 명상해야 한다.

다음엔 남을 나로 바꾸어 생각한후 그 생각에 의지하여 주고 받기를 명상해야 한다.

보리심이 생긴후...

서방삼세 부처님들은 6바라밀에 의지하여 깨달았다. 발보리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동이 필요한데 그 행동이 6바라밀이다.

티벳 퉁카빠대사의 <보리도처제(菩提道次第 깨달음의 길로 가는 올바른 순서)>는 내년 2월 도서출판 여시아문에서 단행본으로 발간됩니다.

10주년 기념 특별할인판매

귀의 삼보하옵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불법홍포를 위해 노력하시는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성불불사에서 「창사 10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유명 출판작들을 확보하여 특별 봉사가격에 주문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찰과, 불자님들의 가정과 사무실에 1품씩 소장하셔서 불심을 항상 결에 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발원하옵습니다.

(※ 한정된 작품이오니 선착순 문의 바랍니다.)

- 성불불사 합장 -

▼ 액자



잉 어: 높이 90cm x 140cm



사계절꽃: 높이 90cm x 140cm



달 마: 높이 90cm x 60cm



가리개: 높이 155cm x 120cm



◀ 병풍

(후면-스님께서 직접 쓰신 친필 반야심경)

: 높이 5.5尺 x 8폭(12尺)

● 문의처 : 02)831-2848 ~ 9
02)831-7075

● 수신자부담전화 : 080)284-2848

● 팩 스 : 02)831-2849